

정부는 최근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사실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통해 창출될 국가의 부는 우리의 경제 규모로 보나 의료비 규모로 볼 때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를 찾아오는 수요가 있다면 이에 제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까지는 대체로 수긍할 것이다. 의료보장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주시하고 있다. 역으로 건강보험의 틀을 답답히 여기는 의료공급자들은 이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성형, 피부 미용을 위한 입국자는 논외로 할 때, 유치사업이 목표로 하는 외국인 환자는 미국의 환자가 주가 된다. 엉망인 자국의 의료제도, 한없이 비싼 의료비에 멍들은 미국 환자가 대상이다. 과연 이들에게서 받는 수가의 우리 건강보험 수가와의 차이가, 그리고 이들이 지불할 의료비와 그들 국가에서 지불했어야 할 의료비의 차액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것이다.



태국, 싱가포르, 인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타국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medical travel 시장을 우리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국가의 의료제도, 의료기술수준, 해외환자 유치상황을 정확히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의 정책과 쟁점에서는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관광산업”을 다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마케팅팀 이영호팀장, 경희대학교 정기택교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산업정책과 박금렬 과장, 제주대학교 박형근교수께서 참여해 주었다.

‘HIRA연구’에서는 2006년 7월 시행된 의료급여혁신종합대책 수립을 전후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슈브리핑’에서는 보장성 확대의 일환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록제 시행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의무등록제 시행을 다루었다. ‘해외동향’에서는 ‘태국의 의료관광산업’, 외국의 수술부위 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현황, ‘처방약 본인부담금이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미국과 캐나다 사례중심으로)’을 소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정 형 선